

[빌립보서 서론]

## 그리스도를 알고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빌립보서 3:10,11)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총 16회 사용되었는데,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아홉 번, ‘함께 기뻐하다’가 두 번, ‘기쁨’이라는 표현이 다섯 번 나옵니다. 기쁨이 편지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자]<sup>1</sup>

바울

[장소]

로마의 감옥(전통적 견해)<sup>2</sup>

처음에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구금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

<sup>1</sup> 바울의 두 세 개의 편지를 모아 놓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3:1에서 4:4로 연결하면 자연스러운데 3:2-21(또는 4:3)이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세운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바울이 감옥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 날을 두고 이 편지를 구술해 가는 중 빌립보 교회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온전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의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핍박 중에서도 일치와 화평과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1:27의 권면(1:27에서부터 시작된 권면-인용자 첨가)을 일단 중단하고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올바른 신앙을 설명하는 내용을 구술하게 된 것 같습니다.”(김세운, 빌립보서, p.117-118) D.A. 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끝으로’)는 헬라어 후기 시대에 와서 ‘그렇다면’이라고 쓰는 말처럼 느슨하게 사용되는 연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2:17-18에서 소개한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슨, 그리스도인의 정, p.124)

<sup>2</sup> 전통적 견해를 주장할 때 부딪히는 한 가지 어려움은 빌립보와 로마가 1,300km 떨어진 먼 거리라는 점입니다. 어떤 학자(콕스텐버거, p.674)는 빌립보와 로마의 거리를 약 1,200마일(약 2,000km)로 봅니다. 빌립보서의 기록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와 감옥에 있는 바울 사이에 최소 네 번(어떤 학자는 7번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의 왕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짐 2)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함(4:18) 3)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짐(2:26) 4) 빌립보 교인들이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에게 전해짐(2:26). 그 당시에 1,300km(혹은 2,000km)를 여행하는 데는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관점에서 고대의 여행 여건과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김도현,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p.25)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왕래가 설령 7번이라고 가정해도 1년 6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최소 2년 동안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7번의 왕래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편지가 쓰인 장소에 대해서 가이 사랴(행 23:23-26:30), 에베소(고전 15:32, 고후 1:8-9), 그 외 다른 장소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이외의 다른 저작 장소를 주장하는 이론은 “설득력 있는 논증이 아닌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견해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모이세스 실바, 빌립보서, p.24)

기독교에 대한 네로의 태도가 변하면서 바울은 가택 구금의 상태에서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sup>3</sup> 빌립보의 몇몇 사람들은 복음이 요구하는 바가 반로마적이라며 반대했습니다(행 16:20-21). 이로 볼 때 로마 당국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로마 제국을 자극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를 이유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연대]

A.D. 61-63년<sup>4</sup>

[빌립보 도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것을 철저히 로마식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sup>5</sup> ‘식민지’ 빌립보는 사실상 ‘축소판 로마’였습니다.<sup>6</sup> 이런 점을 고려했던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로마적 색채를 띤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sup>7</sup> 빌립보의 시민들은 헬라의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매우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냐의 북동부, 데살로니가 근처에 위치합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케도냐의 빌립 2세에 의해서 B.C. 360-358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빌립보’라 불렸습니다. B.C. 42년경에 퇴역 로마 군인들이 안토니와 옥타비아에 의해서 빌립보에 옮겨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주(Roman province)가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된 식민지(Roman colony)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 황제는 빌립보 도시에 ‘유스 이탈리아쿰’(ius italicum; Law of Italy)을 수여했는데, 이것은 로마의 주 도시(provincial city)에 부여하는 아주 명예로운 권리로서, 로마의 ‘법률적인 성격’(legal character)을 빌립보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립보에는 인두세나 토지세가 없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재산을 구입, 양도,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이데올로기, 로마의 문화와 법이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B.C.168년에 로마가 페르시아를 점령한 이래로 빌립보는 로마와 동양을 잇는 길인 ‘Via Egnatia’(Egnatian Way, 에그나티아의 가도<sup>8</sup>)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근처에는 금광이 있었고, 바다와 비옥한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했습니다.<sup>9</sup> 빌립보의 도시 인구는 약 1만 명으로 추산합니다.<sup>10</sup>

<sup>3</sup> 빌립보서·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16

<sup>4</sup> 가이사랴일 경우 약 58-60년, 에베소일 경우 약 54-56년 (마크 알란 포웰, 현대인을 위한 신약 개론, p.384)

<sup>5</sup> 빌립보서·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19

<sup>6</sup> 알렉 모티어, 빌립보서 강해, p.17

<sup>7</sup> ‘시위대’(1:13), ‘생활하라(시민 노릇하라)’(1:27), ‘협력하는 것(군인이 전쟁 중에 자기 위치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지키는 것)’(1:27a), 통치권과 관련된 표현(2:10-11), ‘시민권’(3:20), ‘빌립보 사람들’(4:15), ‘가이사랴의 집 사람들’(4:22)등. (빌립보서·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57)

<sup>8</sup> 이 도로는 보스포러스 해협(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스탄불 부근의 해협)으로부터 오늘 날의 불가리아, 그리스, 알바니아를 거쳐 아드리아 해까지 뻗어진 로마의 대로입니다. (마크 알란 포웰, 현대인을 위한 신약개론, p.381)

<sup>9</sup> 송영목, 신약 주석, p.906-907

<sup>10</sup> 김도현,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p.18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들은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첫 회심자는 루디아였고, 짐치는 여자의 악귀를 쫓아내었으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 곳에 회당은 없었던 것 같고<sup>11</sup>,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본거지였습니다(행 16:40). 빌립보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가 다수였을 것입니다.<sup>12</sup>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군사 도로로서 아주 중요했던 ‘Via Egnatia’의 도상에 있는 도시에 첫발을 들여놓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설립은 바울의 선교 전략과 계획에 분수령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15에서는 빌립보에서의 복음 선포를 유럽에서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평가합니다.<sup>13</sup>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빌4:1)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1:8). 바울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

<sup>11</sup> 바울이 찾아가는 곳은 회당이 아니라 강가였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암시이며,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회당이 설립하려면 유대인 성인 남자 열 명이 있어야 하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회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인 열 명조차도 빌립보에 없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40.)

<sup>12</sup> 송영복, 신약주석, p.907 또한 “이 편지에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 없다는 것과 유대인 이름의 부재는 빌립보 교회가 주로 이방인 위주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개혁주의 스테디 바이블, p.2133-2134)

<sup>13</sup> 빌립보서·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40 / 4:15의 ‘복음의 시초’라는 어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Collange는 바울이 유럽을 자기에게 맡겨진 선교지로 보고 빌립보에서의 선교 활동을 복음 선포의 실제적인 출발점으로 간주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제랄드 호돈도 그의 견해를 옹호합니다. (제랄드 호돈, 빌립보서, p.379)

고의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자비량 선교’였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만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일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도 힘을 같이 했습니다(4:3).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바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쓸 것을 보내는 등 도움을 보냈습니다(빌 4:16, 고후 11:9). 바울도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돌보게 했고(빌 2:19, 행 19:21-23), 자신은 두 번 이상 그 곳을 방문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겨울을 보내기 위해 고린도로 가기 전에 빌립보를 다시 방문했고(행 20:1~3, 고후 2:13), 그 이듬해 봄에 빌립보를 방문하여 유월절 절기를 보냈습니다(행 20:3~6).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나누었던 특별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행 18:5, 19:22, 고후 11:9, 빌 2:25).<sup>14</sup> 그래서 어떤 학자는 빌립보서가 우정 서신(friendship letter)의 일반적 형태와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sup>15</sup>

이런 이유로 빌립보서는 긍정적이고 가장 낙관적인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귀중한 관계의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sup>16</sup>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서신의 우선적인 관심이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누리는 관계를 굳게 하고 칭송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sup>17</sup> 마틴(R.P.Martin)은 “빌립보서는 ‘바울의 인격적이고 목회적인 성격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며, ‘바울이 애정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초기 그리스도인 회중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알게 했다면, 빌립보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러일으켰고 그리하여 사람들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sup>18</sup>

#### [편지를 쓴 이유]<sup>19</sup>

- 1)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보내 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4:10, 14-18). 그렇다면 빌립보서는 일종의 영수증 성격을 지닌 감사장입니다.<sup>20</sup>
- 2)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고 싶었고, 특히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 전도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었습니다(1:12-26). 또한 그는 비록 그 자신도 풀려나서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해 주고 싶었습니다(2:19-24).
- 3)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2:25-30).<sup>21</sup>

<sup>14</sup> 빌립보서·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43~44

<sup>15</sup> 마크 알란 포웰, 현대인을 위한 신약 개론, p.385

<sup>16</sup> 알렉 모티어, 빌립보서 강해, p.21

<sup>17</sup> 마크 알란 포웰, 현대인을 위한 신약 개론, p.379,385

<sup>18</sup> IVP 성경 주석, p.1714

<sup>19</sup> 앞의 책, p.1712

<sup>20</sup> 빌립보서·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47

<sup>21</sup>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거두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면서, 그에게 옥에 갇힌 바울을 수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충분히 못했든지, 아니면 그에게서 소식이 별로 없었든지 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 4) 빌립보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분열 조짐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증언하도록 권면하고자 했습니다(1:27, 2:1-11, 4:2-3).
- 5)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경향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복음과 기본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기를 원했습니다(3:1-11).
- 6) 담대하게 고난에 맞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모든 일과 모든 환경에서 그들의 삶을 주께 맡기도록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1:27-30, 2:12-18, 3:17-21, 4:4-9).

[편지의 구조]

- I. 인사말 1:1-2
- II. 감사기도 1:3-11
- III. 바울의 관심 1:12-30
  - A. 복음이 진전되는 것[1:12-18]
  - B.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1:19-26]
  - C.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1:27-30]
- IV. 바울의 권고 2:1-30
  - A.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라.[2:1-18]
    - a.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1-4)
    - b.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5-11)
    - c. 구원을 이루라(12-18)
  - B.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복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2:19-30]
- V. 바울의 열망 3:1-21
  - A.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경계[3:1-3]
  - B. 그리스도와 관련한 바울의 고백[3:4-21]
    - a.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4-6)
    - b.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7-9)
    - c.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10-15)
    - d. 그리스도를 앞에 따른 소망 - 천국 시민권(16-21)
- VI. 바울의 권면과 감사 4:1-9
  - A. 권면[4:1-9]
    - a. 일치될 권면(4:1-3)
    - b. 기쁨, 관용, 기도를 권면(4:4-7)
    - c. 마지막 권면(4:8-9)
  - B. 감사 4:10-20
    - a. 그리스도 안에서의 필요와 만족(10-14)
    - b. 재정적 도움을 준 빌립보 성도들(15-20)
- VII. 바울의 마지막 인사 4:21-24

[주제]

---

또는 교회에서 그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그 부분을 상당히 장황하게 언급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당부를 넘치도록 잘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2:30), 그 자신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2:27), 지금은 완치되어서 그의 병환을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봐 이제 돌려보낸다(2:28).”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45)

### 1) 기쁨

기쁨은 빌립보서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에서(1:4), 그의 사역의 열매(4:1)에서, 고난 심지어 죽음에 직면해서(2:17)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알고서 기뻐합니다(1:18).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됨과 사귄이 있을 때 기뻐하고(2:2), 교우들의 선물에 대해서 기뻐합니다(4:10). 또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1:25, 3:1, 4:4),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라(2:28-29)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의 신자들이 중요한 것(복음이 진보되는 것) 안에서 기뻐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려는 시도입니다.”<sup>22</sup>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 이상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1장 20-22, 2장 5-11, 3장3, 7-14, 4장11-13)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데서 오는 기쁨(1장 4-5, 12, 14-18, 27-28, 2장 5-11, 3장15-17, 4장3-9,17)입니다.

결국 이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기독교의 ‘금상첨화’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져다 준 ‘본질적인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는 ‘초월적 가치’를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sup>23</sup>

### 2)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

이 서신에서만큼 바울의 이 열망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알기 바라는 바울의 일편단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1:20).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까지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3:7-14). 그는 어떤 환경과 어떤 궁핍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자기는 만족한다고 말합니다(4:11,13).<sup>24</sup>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빌립보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sup>25</sup> 기쁨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모범적으로 가르쳐 줍니다.<sup>26</sup>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언급한 그리스도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근원(1:11), 전도의 핵심 내용(1:18), 삶의 목적(1:20,29), 삶의 주관자(1:21), 비하와 승귀(2:6-11), 완전한 지식(3:8), 성도의 궁극적 바램(3:20), 기쁨의 근원(4:4), 성도의 능력(4:13),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4:19)이었습니다.<sup>27</sup>

### 3)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자 하는 열망(복음의 진보에 대한 열망)

바울은 자신의 상황(1:12)과 빌립보 성도들의 어려움(1:25) 안에서 복음이 진보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투기, 분쟁, 착한 뜻, 다툼, 걸치레 등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1:14-18).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투옥과 에바브로디도의 병과 그들 자신의 박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sup>22</sup> 프랭크 킬만, 신약신학, p.507

<sup>23</sup> 콰스텐버거 외, 신약개론, p.688

<sup>24</sup> IVP성경주석, p.1713

<sup>25</sup> 고든 D. 피 · 더글라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p.445

<sup>26</sup> 김세윤, 빌립보서 강해, p.19

<sup>27</sup> 톰슨III 주석, p.2577

세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증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그들이 서로 연합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그들의 증거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2:14-16).<sup>28</sup>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복음이 진보되는 것에 관한 바울의 관심사가 편지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sup>29</sup>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흥미로운 단어가 ‘시민권’(3:20)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시민’이라는 단어 군을 사용한 유일한 서신입니다[1:27의 ‘생활하라(시민 노릇하라)’, 3:20의 시민권].<sup>30</sup> ‘시민권’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튀마’인데, 이 단어는 종종 외국인이나 퇴역 군인의 식민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sup>31</sup>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권은 그들에게 주변 야만족들 사이에서 로마 시민다운 구별된 삶을 살면서 로마 시민의 정신, 윤리, 가치관, 행복관, 인생관을 보여주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지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와 자랑과 감격을 가지고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 윤리, 가치관, 행복관, 인생관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sup>32</sup> 스탠리 하우어워스와 윌리엄 윌리몬은 말합니다. “교회는 식민지이며, 타 문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다.”<sup>33</sup> 제랄드 호돈도 말합니다. “각 지역 교회는 하늘의 식민지이며, 교인은 하늘 도성의 완전한 시민권을 누리고 있지만(참조. 갈4:26, 엡2:19),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sup>34</sup>

예를 하나 들어 보면, A.D.596년에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sup>35</sup>는 로마에서 영국으로 건너오면서 당시 로마의 종교였던 기독교,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 로마의 건축술과 공학 기술을 영국에 도입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서 고향의 모습을 그대로 이식시켰습니다. 영국 땅에 로마를 옮겨 심은 것입니다.<sup>36</sup> 이처럼 신자들은 이 땅에 하늘을 이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 4) 고난

고난은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의 하나이지만 종종 간과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과 연결되어 드러나는 것은 고난의 메시지입니다. 기쁨과 고난의 역설적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난의 상황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1:12-13). 바울은 투옥 중에 죽음을 내다보았고(1:20-22), 에바드로디도는 복음을 이유로 거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2:27). 빌립보 교인들도 복음의 신앙을 위한 분투로(1:27) 고난을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1:28). 그들은 고난을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로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1:29).<sup>37</sup>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은 고난을 언급하고(2:8), 자신의

<sup>28</sup> 프랭크 킬만, 신약신학, p.507

<sup>29</sup> 앞의 책, p.485

<sup>30</sup> 무디 성경 주석, p.2120

<sup>31</sup> 제랄드 호돈, 빌립보서, p.327

<sup>32</sup> 빌립보서·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49-50

<sup>33</sup> 스탠리 하우어워스·윌리엄 윌리몬,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p.13

<sup>34</sup> 제랄드 호돈, 『빌립보서』, p.328

<sup>35</sup>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을 쓴 아우구스티누스(A. D. 354-430)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sup>36</sup> 스티븐 J. 니콜스, 이 땅 위의 천국, p.59-60

<sup>37</sup> 쉬운 성경은 1:2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라 믿었습니다(3:11). 더욱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4:13) 굶주림이나 가난과 같은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4:12). 고난 가운데 얻는 기쁨은 특히 매를 맞은 후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뻐하던 바울과 실라에 관한 기사를 조명해 줍니다(행 16:16-25).<sup>38</sup>

#### 5) 성숙과 교제와 하나 됨

성숙을 위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합니다(2:6-11). 또 성숙함의 예로 바울 자신(3:17),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디모데(2:22)와 에바브로디도(2:25)를 언급합니다. 또 유오디아와 순두게(4:2)에게 성숙함을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모든 성도들에게 성숙함을 권면합니다(4:8). 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1:27)하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2:2) 사도의 기쁨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이기심이나 교만, 당파심으로 성도들 간의 사귀를 깨뜨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자 했습니다(2:1-4).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2:6-11)이 형상화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할 때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6)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

빌립보서 3:9은 신약 전체에서 칭의에 대한 강조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3:3-6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 이전에 구원을 추구하던 노력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결점 없는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의 이력(3:3-5)은 육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3:4). 그러나 바울의 회심은 급진적인 재평가를 야기했습니다. 이전의 이력(3:7)과 기타 모든 것(3:8)은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것에 비교할 때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 의에 관해 두 가지 상충되는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3:9). 바울은 율법을 지켜 얻는 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뚜렷하게 대조시킵니다.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접받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믿음으로 받는 의라는 선물뿐입니다.<sup>39</sup> 이신칭의는 바울이 누리는 기쁨의 견고한 토대입니다.

[적용] (목표, 사명, 고난에 대한 자세 점검해 보기)

#### 1) 우리의 목표 : 그리스도를 아는 것.

빌립보서에 기쁨이 메아리치는데, 그 기쁨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열망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가?”, “모든 활동을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목적에 비추어 평가하고 있는가?”

#### 2) 우리의 사명 :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이로 인한 기쁨이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천국을 이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선교를 ‘기독교 기쁨주의자의 함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sup>40</sup>

<sup>38</sup> 쾨스텐버거 외, 신약개론, p.688-689

<sup>39</sup> 앞의 책, p.689-690

<sup>40</sup> 존 파이퍼, 하나님을 기뻐하라, p.311-352

이 세상에 천국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방식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마음가짐’이나 ‘기독교적 사고방식’과 관련한 단어들도 많습니다. ‘프로네오’(생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목하고 몰두하는 것)라는 단어가 열 번 나옵니다.<sup>41</sup>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힘쓰라(1:27), 한 마음을 가지라(2:2),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2:5),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을 경계하라(3:19), 도덕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라(4:8)고 권면합니다.<sup>42</sup> 이렇듯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방식(‘프로네오’)을 형성해 갈 것을 강조합니다.

### 3) 고난을 이기는 능력 :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헤미야 8:10) 이를 사도 바울의 말로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어떤 힘든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1:14-18, 29-30, 2:16-17)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관점을 공유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쁨을 고난에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쁨이 커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1:29).<sup>43</sup>

#### [기도]

1)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 일으켜 주소서.  
2)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의 힘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주소서. 3)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성숙함에 이르게 하소서.

한 마디 : 그리스도를 알자.

#### [참고 문헌]

- 고든 D. 피 · 더글라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길성남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0)  
 김도현,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6)  
 김세운, 『빌립보서 강해』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8)  
 리고니아 미니스트리 출판부,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김진운 외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마크 알란 포웰, 『현대인을 위한 신약개론』 (이승호 옮김. 서울: CLC, 2014)  
 모이세스 실바, 『빌립보서』 (최갑중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0)  
 목회와 신학 편집부, 『빌립보서·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08)  
 송영목, 『신약주석』 (서울: 쿰란출판사, 2011)  
 스탠리 하우어워스·윌리엄 윌리몬,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김기철 옮김. 서울: 복 있는

<sup>41</sup> 1:7, 2:2(두 번), 2:5, 3:15(두 번), 19, 4:2, 10(두 번)

<sup>42</sup> 무디 성경 주석, p.2119

<sup>43</sup> 김도현,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p.30-31

는 사람, 2016)

스티븐 J. 니콜스, 『이 땅 위의 천국』 (이용중 옮김. 파주: 살림, 2007)

알렉 모티어, 『빌립보서 강해』 (정옥배 옮김. 서울: IVP, 2010)

제랄드 호돈, 『빌립보서』 (채천석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9)

존 파이퍼, 『하나님을 기뻐하라』 (박대영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D.A.카슨, 『그리스도인의 정의』 (송영의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괴스텐버거 외, 『신약개론 요람 십자가 왕관』 (김경식 외 옮김. 서울: CLC, 2013)

프랭크 틸만, 『신약신학』 (우성훈·김장복 옮김. 서울: CLC, 2011)

『무디 성경 주석』 (정옥배 외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7)

『IVP 성경 주석』 (김재영 외 옮김. 서울: IVP, 2010)

『툼슨III 성경 주석』 (강병도·전봉준 편. 서울: 기독 지혜사, 2016)